

## 현대 강해설교의 장르 이해와 적용

권호 | 설교학·조교수

### I . 글을 시작하며

현대 강해설교의 중요한 인물 중 한명인 데이빗 알렌(David L. Allen)은 최근 복음주의 설교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본문성(textuality) 회복의 운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대 설교학 현장에서 본문에 충실한 설교로의 진정성 있는 회복의 노력이 ‘본문이 이끄는 설교’ 운동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흥분되는 사실이 아닐 수 없다.”<sup>1</sup> 알렌의 말처럼 실제 북미 설교학은 복음주의 설교학자들을 중심으로 본문으로 돌아가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노력하고 있다. 현대 강해설교의 대표적 그룹인 성경적 설교(Biblical Preaching)와 본문이 이끄는 설교(Text-Driven Preaching)는 ‘본문이 왕이다’(Textus Rex)라는 모토로 본문의 의미를

<sup>1</sup> 권호, 『본문이 살아있는 설교』(Text-Driven Preaching) (서울: 아가페, 2018), 6.

정확하게 드러내서 전하려는 전통 강해설교에 뿌리를 두고 있다.<sup>2</sup> 그러나 현대 강해설교는 전통 강해설교처럼 설교의 내용을 본문에서 가지고 올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본문의 구조와 역동성까지 설교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설교학적으로 말하면 본문의 형식(literary form of the text)을 설교의 형식(sermon form)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현대 강해설교학의 이러한 노력이 청중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만은 아니다. 본문이 이끄는 설교를 강조하는 학자들은 성경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형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기 때문이다. 복음주의 설교학의 떠오르는 설교학자 스티븐 스미스(Steven L. Smith)는 말한다. “성경의 장르는 중요하다. 성경의 형식이 거룩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한 형식에 담겨 있다.....성경영감설을 믿는 이들에게 설교는 실제로 성경본문을 재현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강해다. 설교의 형태는 본문의 형태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제시하는 단순한 전제다.”<sup>3</sup>

스미스의 말이 옳다. 설교자는 성경이 성령에 의해 영감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한다. 영감되었기에 우리가 설교해야 할 본문은 단순한 글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한편 성경이 영감되었다면 그 내용을 담은 형식, 장르 또한 귀하게 여겨야 한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담을 수 있는 어떤 형식도 택하셨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설교자는 본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의 형식도 소중하게 여기며 그

<sup>2</sup> Daniel L. Akin, David L. Allen, and Ned L. Mathews, *Text-Driven Preaching: God's Word at the Heart of Every Sermon* (Nashville: B&H Publishing, 2010), 7.

<sup>3</sup> 스티븐 스미스, 「본문이 이끄는 장르별 설교」, 김대혁, 임도균 역 (서울: 아가페북스, 2016), 18, 72.

것을 설교에서 살려야 한다.

이제 최근 복음주의 설교학이 어떻게 장르를 인식하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설교에 적용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 Ⅱ. 설교학에 떠오르는 장르

### 1. 성경 장르란 무엇인가

성경에는 이야기, 시, 잠언, 서신 등 다양한 종류의 장르가 존재한다. 현재 복음주의 설교학의 장르 인식과 적용에 대해 살피기 전에 기초적인 단계로 먼저 장르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장르(genre)는 ‘종류’(kind)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genus*로부터 왔다. 이 단어가 프랑스어에서 사용되면서 발음이 바뀌었지만 그 의미는 여전히 ‘종류’ 혹은 ‘형태’(form)를 뜻하며, 현재는 영어권에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어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장르는 ‘문학의 종류’(a kind of literary work)다.

장르에 대한 복잡한 정의도 있다. 이런 정의는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장르의 구성과 기능까지 나타낸다는 장점이 있다. 그랜트 오즈번(Grant R. Osborne)은 웨렉(Rene Wellek)과 워렌(Austin Warren)의 이론을 바탕으로 장르를 “외적양식(outer form, 특정한 운율이나 구조)과 내부 양식(inner form, 태도, 어조, 목적, 주제와 청중)에 기반을 둔 문학작품들의 묶음(a grouping of literary works)”이라고 정의한

다.”<sup>4</sup> 이런 구성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공통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장르는 주해과정에서 해석자가 저자의 의도된 의미를 정확하게 밝힐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이런 기능 때문에 오즈번은 의미가 ‘장르 의존적’이라고 말한다(meaning is genre-dependent).<sup>5</sup> 장르가 저자에게 가장 기초적인 해석학적 원리의 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장르를 통해 독자는 언어의 일정률을 배우고, 예측된 방식으로 본문에 접근함으로 그것에 담겨있는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오즈번의 설명을 들어보자.

본문의 장르(genre) 혹은 문학 유형(type of literature)은 ‘언어 게임의 규칙’(rules of the language game), 즉 본문 이해를 위한 해석학적 원리를 제공한다. 우리는 소설을 이해하려 할 때 시를 이해하는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모든 저자는 메시지 해독을 위한 충분한 규칙을 독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자기 메시지를 특정 장르에 담는다. 이런 힌트들은 독자(또는 청자)를 안내하고 해석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마가가 예수 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기록할 때(막4:1-20), 그 비유를 독자들과 적절히 의미소통을 할 수 있는 문맥과 방법 속에 위치해 두었다. 우리는 비유가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이해하고, 어떻게 상징들이 마가복음의 문맥 안에서 기능하는지를 주목함으로써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sup>6</sup>

위에서 언급한대로 장르는 해석을 위한 원리를 제공한다. 이런 의미에서 장르는 본문과 독자 사이를 이어주기 때문에 가치 있는 연결고리

<sup>4</sup> Grant R. Osborne, *The Hermeneutical Spiral: A Comprehensive Introduction to Biblical Interpretation* (Downers Grove, IL: IVP, 2006), 181.

<sup>5</sup> Osborne, *The Hermeneutical Spiral*, 26.

<sup>6</sup> Osborne, *The Hermeneutical Spiral*, 26.

(valuable link between the text and the reader) 역할을 한다.<sup>7</sup>

그렇다면 설교학자들은 이런 장르를 어떻게 이해하고 정의하는가. 스미스는 장르를 간단하게 ‘문학적 장치’(literary devices)로 정의한다. 그러나 그는 이 정의 때문에 설교자가 특정 본문을 획일적으로 어떤 틀에 집어 넣거나, 장르를 고정된 수사학적 가공물로만 여기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sup>8</sup> 스미스는 설교자가 장르가 존재하게 된 상황을 알아야하고, 장르가 시대를 넘어 오늘날의 세계로 의미를 전달하며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sup>9</sup>

한편 일부 설교학자들은 장르가 일반 문화와 문학에서 쓰이는 용어이기 때문에 사용하기를 주저한다. 그래서 장르라는 말 대신 토마스 롱(Thomas G. Long)처럼 ‘성서의 문학 유형’(literary forms of the Bible)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sup>10</sup> 현재 설교학자들이 어떤 용어를 사용하든 성경에 다양한 형태, 즉 장르가 존재하고 그것을 고려해서 본문 해석과 설교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가 이루어진 상태다. 언제부터 그런 움직임이 있었을까. 핵심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고 간결하게 그 역사를 잠시 살펴보자.

---

<sup>7</sup> Osborne, *The Hermeneutical Spiral*, 182-83.

<sup>8</sup> 스미스, 「본문이 이끄는 장르별 설교」, 66,

<sup>9</sup> 스미스, 「본문이 이끄는 장르별 설교」, 63-69.

<sup>10</sup> 그가 사용한 책의 제목을 주목하라. Thomas G. Long, *Preaching and the Literary Forms of the Bibl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9).

## 2. 성경 장르 인식과 수용의 역사

최근 복음주의 설교학은 성경 장르를 본문의 의미 발견과 설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그것을 활용할 구체적인 방법론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니다. 과거부터 조금씩 시도되고 있었고, 어느 순간부터 차츰 설교학의 수면으로 드러난 것이다. 언제부터, 어떤 설교학파들이 그런 시도를 한 것일까. 그 흐름은 다음과 같다.

설교에 있어서의 장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용하려는 첫 노력은 1970년대 발흥한 신설교학(the New Homiletic)에서 시작됐다.<sup>11</sup> 신설교학의 창시자 프레드 크래독(Fred B. Craddock)은 획일적 연역식 설교만을 고집하는 전통설교를 비판했다.<sup>12</sup> 그는 “설교의 따분한 획일성(dull uniformity)과 반대되는 문학형식의 현저한 다양성(striking variety in the literary forms)이 성경에서 뚜렷하게 발견된다”는 점을 언급했다.<sup>13</sup>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설교자들이 “다양한 성경장르의 보배들”을 설교 메시지로 전달할 때 “고정된 틀(unvarying mold)”로 축소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sup>14</sup> 크래독은 여러 성경장르 중 내러티브, 특별히 비유에 나타난 문학적 기능과 효과를 주목하고, 그것이 가진 간접적 소

<sup>11</sup> 이와 관련된 역사적 고찰과 발생된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권호, “현대강해설교의 한 흐름: 장르가 살아있는 설교,” 한국설교학회, 「설교한국」 제8권 (2013 봄 호): 91-124.

<sup>12</sup> Fred B. Craddock, *As One Without Authority*, rev. ed., (St. Louis: Chalice, 2001), 3-19.

<sup>13</sup> Craddock, *As One without Authority*, 113. Craddock은 성경의 형태를 시, 영웅담(saga), 역사적 내러티브, 잡언, 찬송, 일기, 전기, 비유, 서신, 드라마, 신화, 대화, 복음으로 구분했다.

<sup>14</sup> Craddock, *As One Without Authority*, 113.

통(indirect communication)방식을 설교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15</sup> 그에 의해 촉발된 내러티브에 대한 관심은 유진 로우리(Eugene L. Lowry)에 의해 더욱 가속화 되고 구체화 된다. 그는 라우리 고리(Lowry Loop)라 불리는 다섯 단계를 통해 성경본문을 잘 짜인 플롯형태의 내러티브 설교로 만드는 방법을 제시했고 많은 설교자들이 이때부터 내러티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sup>16</sup> 그러나 신설교학이 자신들이 만들 귀납적 설교의 틀을 만들기 위해 본문을 왜곡하는 현상이 나타났다.<sup>17</sup>

신설교학이 내러티브에 한정된 설교방법론을 발전시키는 동안, 1980년대 후반 성서신학의 문예비평(literary criticism)적 연구를 설교학에 접목시키려는 시도가 생겨났다.<sup>18</sup> 설교학자들이 본문에 내재된 문학장르의 특징을 어떻게 설교에서 살릴 것인가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sup>19</sup> 문예접근적 설교학은 그동안 신설교학이 내러티브 장르에 관심을 한정시킨 것과는 달리, 다양한 성경장르에 대해 연구를 시도했다. 또한 성경장르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설교에 옮기는 방법들을 본문에 내재된 문학

<sup>15</sup> 내러티브와 비유를 유사한 장르로 볼 것인가, 아니면 독립적 장르로 볼 것인가는 지면의 한계상 다루지 못했다. 그러나 초기 신설교학에서는 유사 장르로 연구되었다. Cf., Eugene L. Lowry, *How to Preach a Parable: Design for Narrative Sermon* (Nashville: Abingdon Press, 1989).

<sup>16</sup> Eugene L. Lowry, *The Homiletical Plot: The Sermon as Narrative Art Form* (Atlanta: John Knox Press, 1978), 25.

<sup>17</sup> Allen은 예로써 신설교학은 잘못된 성경관과 인간중심의 토대위에 서있다고 비판한다. 더 자세한 그의 비판은 다음 글을 참고하라. David L. Allen, "A Tale of Two Roads: Homiletics and Biblical Authority," *JETS* 43 (2000): 508-13 ; Thomas Long, "What Happened to Narrative Preaching?" *JP* 28 (2005): 9-14.

<sup>18</sup> Day, Astley, and Francis, *A Reader on Preaching* 에서 Thomas G. Long, Walter Brueggemann, Peter K. Stevenson의 글을 참고하라.

<sup>19</sup> Thomas G. Long, "The Distance We Have Traveled: Changing Trends in Preaching" in *A Reader on Preaching*, 13-14.

적 장치들(literary devices)에서 도출하기 때문에, 신설교학의 접근보다는 한걸음 발전된 시도로 평가된다. 대표적 학자로는 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그의 저서 ‘성서의 문학유형과 설교’(*Preaching and the Literary Forms of the Bible*)에서 기초적이지만 어떻게 장르를 이해하고 설교에 반영해야 하는지 중요한 원칙을 제시했다. 롱이 이 저서는 장르를 반영한 설교에 대한 고전이 되었다.

한편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1980년대 신설교학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 보완해 장르를 설교학에 가져오려는 움직임이 1980년 대 해돈 로빈슨(Haddon W. Robinson)을 중심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들은 주로 복음주의설교학회(Evangelical Homiletics Society)에 속한 설교학자들로서 ‘성경적 설교’(Biblical Preaching)를 추구하는 그룹이다. 이들은 본문의 내용을 강조하는 강해설교에 뿌리를 두면서 다양한 장르를 설교형태에 적용하려고 노력한다. 성경적 설교는 전통적 연역식 설교에 내러티브 설교법과 다양한 장르의 설교학적 적용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했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스티븐 매튜슨(Steven D. Mathewson)을 들 수 있는데, 그는 구약의 내러티브를 어떻게 이해하고 설교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했다.<sup>20</sup> 제프리 아더스(Jeffrey D. Arthurs) 또한 빠트릴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자신의 저서 ‘다양함으로 설교하기’(*Preaching with Variety*)를 통해 성경의 6가지 장르(시편, 잠언, 내러티브, 비유, 서신서, 묵시문학)의 특징을 살려 어떻게 설교에 반영할

---

<sup>20</sup> Steven D. Mathewson, *The Art of Preaching Old Testament Narrative* (Grand Rapids: Baker, 2002).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방법을 제시했다.<sup>21</sup>

지금까지 살펴본 세 학파보다 성경의 장르를 더 비중 있게 설교에 접목 하려는 그룹이 있다. 본문이 이끄는 설교다. 미남침례교단(SBC)의 설교학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이 움직임은 장르 적용에 대한 확고한 철학뿐만 아니라, 장르를 어떻게 설교에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밀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데이비드 알렌이 기획 출판한 ‘본문이 이끄는 설교’(Text-Driven Preaching)는 성경의 장르 인식과 설교에서의 적용에 대한 견고한 철학적 토대를 제시한 책이다.<sup>22</sup> 한편 최근 발표된 스미스의 ‘하나님의 음성 되살리기’(Recapturing the Voice of God)는 장르설교를 위한 세밀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담고 있는 대표적 저서로 평가되고 있다.<sup>23</sup>

간단하게 북미 설교학의 주요 네 학파가 어떻게 성경 장르를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설교학에 적용하는지 살펴보았다. 네 그룹의 신학적 경향은 각각 차이를 보이지만 하나의 일치된 주장은 성경 장르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크래독은 장르를 “성경의 보석”이라고 표현했고, 통은 “내용의 중추”라고 불렀으며, 아더스는 “하나님의 소통방식”으로 이해했고, 알렌은 설교자가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으로 강조했다.<sup>24</sup> 다양한 표현이지만 이들의 함축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동일하다. 장르가 중요하다.

<sup>21</sup> Jeffrey D. Arthurs, *Preaching with Variety: How to Re-create the Dynamics of Biblical Genres* (Grand Rapids: Kregel, 2007).

<sup>22</sup> Daniel L. Akin, David L Allen, and Ned L Mathews, *Text-Driven Preaching: God's Word at the Heart of Every Sermon* (Nashville: B&H Publishing, 2010).

<sup>23</sup> Steven W. Smith, *Recapturing the Voice of God: Shaping Sermons Like Scripture* (Nashville: B&H Academic, 2015). 번역본: 「본문이 이끄는 장르별 설교」, 김대혁·임도균 역 (서울: 아가페북스, 2016).

<sup>24</sup> Craddock, *As One Without Authority*, 113. Long, *Preaching and the Literary Forms*, 13. Arthurs, *Preaching with Variety*, 22. Akin, Allen, and Mathews, *Text-Driven Preaching*, 104.

### 3. 장르, 의미 발견과 다양성의 토대

지금까지 성경 장르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또한 장르를 설교학에 접목하려는 시도가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 있었는지 북미 설교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제 왜 설교학자들이 성경의 장르를 주목하고, 어떻게 그것을 설교에 적용하려고 하는지 알아보자.

#### 1) 본문의 의미 파악의 토대

설교학자들이 성경 장르를 주목하고, 그것을 설교에 적용하려는 첫 번째 이유는 장르를 이해해야 본문의 의미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 강해설교의 대표적 그룹인 성경적 설교나 본문이 이끄는 설교 모두 그 뿌리를 전통적 강해설교에 둔다. 강해설교는 본문의 의미를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고민하던 학자들은 본문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 본문의 형식인 장르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통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열린 마음으로, 주의 깊게 본문들을 살핀 설교자라면, 시편설교가 기직기사를 다루는 설교와 달라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두 본문이 말하는 것(what)이 다르기 때문만 아니고, 어떻게(how) 표현하고 있는지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시편은 시가문학이고, 기적기사는 내려 티브다. 둘은 확연히 다른 문학적, 수사학적 형태이기에, 각각 다른 방식과 대조되는 효과로 독자에게 다가온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묘한 문학적 차이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적절히 반영한 설교준비과정이 꼭 필요한 것

이다.<sup>25</sup>

사실 본문의 올바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장르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성경신학자들뿐만 아니라 설교학자들이 장르를 이해해야 본문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할 때 종종 인용하는 케빈 벤후저(Kevin J. Vanhoozer)에 따르면 장르에 대한 이해는 성경적 해석에서 매우 중요하다. “성경은 하나의 책이 아닌 광범위한 언어의 레퍼토리로 구성된 다른 종류의 많은 책들이기 때문이다.”<sup>26</sup> 바울 서신의 본문전개 방식과 언어적 효과는 복음서의 내러티브와 다르다. 또한 잠언과 같은 지혜서와 묵시문학인 계시록은 다른 장르이기에 각각 다른 방식으로 기술됐고, 다른 언어적 효과를 만들어낸다. 결국 본문의 올바른 의미를 발견하기 원한다면 본문의 장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벤후저에 따르면 장르는 흩어진 본문의 여러 요소들을 하나로 묶어 최종 의미를 만들어 내는 전체적 통일성(overall unity)을 만들어낸다.<sup>27</sup> 본문의 의미 발견을 위해서는 몇 개의 단어의 뜻을 파악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 먼저 장르에 담겨있는 전체적인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장르가 가진 일정한 방식이 독자를 의미의 세계로 안내하기 때문이다. 이런 일정한 방식을 학자들은 종종 장르가 ‘문학적 게임의 룰’(the rules of the literary games)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sup>28</sup> 장르는 저자에

<sup>25</sup> Long, *Preaching and the Literary Forms*, 11.

<sup>26</sup> Kevin J. Vanhoozer, *Is there a Meaning in This Text?* (Grands Rapids: Zondervan, 1998), 342.

<sup>27</sup> Vanhoozer, *Is there a Meaning in This Text?*, 341-42.

<sup>28</sup> Vanhoozer, *Is there a Meaning in This Text?*, 342.

게는 본문이 쓰여져야 할 방식의 룰, 독자에게는 읽혀져야 할 방식의 룰을 제공한다. 이렇게 장르에 따라 텍스트가 일정한 룰에 따라 작성되고 읽혀지기 때문에 전체적 의미가 전달된다. 이런 면에서 ‘의미는 장르에 묶여있다’(genre-bound).<sup>29</sup>

설교학자들도 본문의 의미 파악을 위해 장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헤셀 요크(Hershael W. York)는 그의 책 ‘담대하게 설교하기’(Preaching with Bold Assurance)에서 성경장르에 대한 이해가 본문의 의미파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다. 각 장르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본문을 해석해야 바른 의미가 파악된다. “의미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본문의 형식과 장르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이유에서 설교자는 본문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경저자가 사용하고 있는 형식과 장르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를 가져야한다.”<sup>30</sup>

성경신학에서 본문의 바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갖게 된 장르에 대한 관심은 이제 설교학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설교자들이 본문의 바른 이해를 원한다면 본문이 어떤 형태로 씌여졌는지 먼저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의미가 장르 안에 존재하고, 그것의 독특한 구조를 따라 우리에게 전해지기 때문이다.

---

<sup>29</sup> Vanhoozer, *Is there a Meaning in This Text?*, 342.

<sup>30</sup> Hershael W. York and Bert Decker, *Preaching with Bold Assurance: A Solid and Enduring Approach to Engaging Exposition* (Nashville: B&H, 2003), 60-62.

## 2) 설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토대

설교학자들이 성경 장르를 주목하고, 그것을 설교에 적용하려는 두 번째 이유는 설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설교자가 한 가지의 틀로 설교를 준비할 때 단순함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스미스의 말처럼 설교자가 “한 가지 설교 형태에 집착하게 되고, 성경본문을 조작해서라도 우리가 선호하는 설교 형태에 끼워 맞추려는 위험성”에 빠질 수 있게 된다.<sup>31</sup> 이런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크래독은 많은 설교자들이 성경 장르 자체가 설교의 형식을 구상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말한다.

어떤 본문이 바르게하는 것(correcting)인지, 교훈하는 것(instructing)인지, 송축하는 것(celebrating)인지, 살피는 것(probing)인지의 여부는 종종 본문의 문학형식에 의해 드러난다. 즉 문학형식에 의해 본문이 송영인지, 신조인지, 잠언인지, 비유인지, 논쟁인지, 축복인지가 분명해지는 것이다. 만약 설교자가 본문이 하고자 하는 것(what the text does)을 따르기 원한다면, 그 본문의 형식도 따를 것이다. 왜냐면 형식은 단순히 본문을 해석하는 과정뿐 아니라, 설교를 구성(design)할 때도 중요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기 때문이다.<sup>32</sup>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본문이 ‘말하는 것’을 충실히 전하기 위해 본문이 ‘어떻게 말하는가’를 주목한 후, 그것을 설교의 구성에 반영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런 점 때문에 알렌은 성경의 다양한 장르는 다양한 설교 형태를

<sup>31</sup> 스미스, 「본문이 이끄는 장르별 설교」, 32.

<sup>32</sup> Craddock, *Preaching*, 123-24.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오늘날 설교형태는 전통, 유행중인 설교틀(prevailing paradigm in homiletics), 문화, 혹은 성서문학 형식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본문이 이끄는 설교는 성서문학 형식을 고려해서 설교형태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다.<sup>33</sup>

한편 스미스는 획일적 설교의 형태에 집착하는 사람들에게 장르가 의미에 영향을 준다면 당연히 설교의 형식에 반영해야하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만약 성경본문의 구조가 그 의미에 영향을 준다면, 그리고 우리가 본문이 의미하는 것을 설교를 통해 전달하려고 한다면, 본문의 형식을 그대로 설교의 형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sup>34</sup> 그는 이 질문 후에 자신이 생각하는 설교의 목표를 토대로 획일적 틀에서 벗어나 성경의 장르를 통해 설교의 형태를 결정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설교의 목표는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을 다시 전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설교는 성경본문 연구 전에 미리 결정된 설교 형태를 가지면 안 된다. 본문 안에 이미 존재하는 형태를 다시 전달해야 한다. 그 형태가 본문을 설교하는 데 가장 적합한 것이다.”<sup>35</sup>

설교의 형태를 본문의 장르에서 찾으려고 하는 움직임은 장단을 살리기 위한 청신호다. 너무도 빈번히 본문의 형식을 무시한 채 전통에 매인 획일적 방식, 혹은 다양하다 못해 혼란스럽고 세속적인 커뮤니케이션 기법이 설교의 형식으로 사용됐기 때문이다. 설교 형식이 획일적 지루함과 세속적 혼란함에서 빠져나와 다양함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길은 본문의 장르를 만나는

<sup>33</sup> Allen, “Preparing A Text-Driven Sermon,” 103-04.

<sup>34</sup> 스미스, 「본문이 이끄는 장르별 설교」, 40.

<sup>35</sup> 스미스, 「본문이 이끄는 장르별 설교」, 32-33.

것이다.

### III. 성경 장르의 설교학적 적용과 실례

앞 장에서 설교학이 왜 성경 장르에 주목하는지 살펴보았다. 설교학자들은 성경 장르가 주해 단계(exegetical step)에서 본문의 정확한 뜻을 발견하도록 도와주고, 설교 준비단계(homiletical step)에서 설교의 다양성을 열어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설교학이 성경 장르를 어떻게 설교에 적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실례도 살펴보자.

#### 1. 핵심적 장르를 설교로

성경의 장르를 설교의 형태로 바꾸려고 한다면 중요한 질문이 생긴다. 얼마나 많은 장르를 살피고, 그에 따라 얼마나 많은 각각의 설교법을 익혀야 하는가. 설교자가 성경의 모든 장르를 이해하려고 하다가 지쳐버리지는 않을까. 다양한 장르를 파악하는 것도 힘든데 그에 따른 각 설교법을 익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이 질문에 대해 설교학은 희망적인 답을 준다. 장르는 많지만 집중적으로 익혀서 설교에 적용해야 할 장르는 세 종류이다.

먼저 성경에 몇 개의 장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자. 학자들마다 성경의 장르를 몇 가지로 나눌 것인가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 오즈번은 성경의 장

르를 8가지로 구분한다.<sup>36</sup> 구약율법, 내러티브, 시, 지혜, 예언, 묵시, 비유, 서신서가 그것이다. 그런가하면 롱은 범위를 좀 줄여 시편, 잠언, 이야기, 비유, 서신서로 분류했다.<sup>37</sup> 아더스는 롱의 구분에 묵시문학을 더해 6가지로 구분했다.<sup>38</sup> 토니 메리다(Tony Merida)는 스미스의 구분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9가지로 부분했다.<sup>39</sup> 구약 내러티브, 율법, 시편, 선지서, 지혜서, 복음서와 사도행전, 비유, 서신서, 요한계시록. 크래독은 무려 13개, 즉시, 영웅담(saga), 역사적 내러티브, 잠언, 찬송, 일기, 전기, 비유, 서신, 드라마, 신화, 대화, 복음으로 구분하였다.<sup>40</sup> 지금까지 언급된 학자들의 구분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학자	분류
롱(5가지)	시편, 잠언, 내러티브, 비유, 서신서
아더스(6가지)	시편, 잠언, 내러티브, 비유, 서신서, 묵시문학
오즈번(8가지)	구약율법, 내러티브, 시, 지혜, 예언, 묵시, 비유, 서신서
메리다(9가지)	구약 내러티브, 율법, 시편, 선지서, 지혜서, 복음서와 사도행전, 비유, 서신서, 요한계시록
크래독(13개)	시, 영웅담(saga), 역사적 내러티브, 잠언, 찬송, 일기, 전기, 비유, 서신, 드라마, 신화, 대화, 복음

〈표 1〉 학자들의 장르 구분

<sup>36</sup> Osborne의 책 *The Hermeneutical Spiral*의 목차를 참고하라. 6-12장에서 자신이 구분에 따라 정교하게 성경의 장르분석을 시도한다.

<sup>37</sup> Long, *Preaching and the Literary Forms*, 5.

<sup>38</sup> Arthurs, *Preaching with Variety*, 24.

<sup>39</sup> Tony Merida, *The Christ-Centered Expositor* (Nashville: B&H Academic, 2016), 135.

<sup>40</sup> Craddock, *As One without Authority*, 113.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학자들은 성경 속에 최소한 5개, 많게는 13개의 장르가 존재한다고 본다. 언뜻 생각하면 이 모든 장르를 설교의 형태로 만들어야 하는 구체적인 설교학적 기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설교자에게 또한 설교학자들에게도 부담을 느끼게 한다. 이에 대해 스미스는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한다. “좋은 소식은 [성경] 장르가 무수히 많지 않다는 것이다. 장르의 종류는 제한적이다. 더 좋은 소식은, 장르는 크게 보면 세 개의 기초적인 구조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아홉 장르는 크게 세 개의 거시적 구조인 이야기, 시, 서신으로 구분될 수 있다.”<sup>41</sup> 스미스는 메인이 되는 세 장르를 기본으로 그 장르들의 특징이 나타나는 하부구조(하부장르)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장르	기본장르	하부구조
이야기(Story)	구약 내러티브, 율법, 복음서/사도행전	비유
시(Poem)	시편, 선지서, 지혜서	율기, 잡언, 전도서, 아가서
서신(Letter)	서신서, 요한계시록	

〈표 2〉 스미스의 장르 구분

스미스의 장르구분과 그에 따른 하부구조 분류는 장르를 설교 형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적합한 정리로 보인다. 이야기, 시, 서신의 특징을 파악하고 그것을 설교에 반영할 수 있다면 그 특징들이 섞여서 나타나는 하부 장르들도 그렇게 발전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장르의 특

<sup>41</sup> 스미스, 「본문이 이끄는 장르별 설교」, 60.

징을 설교의 형태에 반영할 수 있을까. 큰 방향(direction)을 정리해보면 이야기(Story)의 경우 본문의 플롯이 설교에 나타나게 해야 한다. 시편(Poem)의 경우 본문에 나타난 감정과 이미지를 반영해서 설교를 만들면 된다. 서신서(Letter)는 본문에 나타난 배경과 내용이 전개되는 논리를 반영해 설교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큰 방향만 가지고는 장르를 설교에 반영할 수 없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세부적 논의와 기법(details)이 제안되고 있다.

## 2. 장르에 민감한 설교

본문의 장르는 본문의 내용과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며, 하나의 조화된 시스템으로 작동하여 놀라운 영향력들을 만들어 낸다.<sup>42</sup> 본문은 내용(content)과 형식(form)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용은 텍스트의 메시지, 형식은 그 메시지가 전해지는 문학적 형태, 즉 장르를 말한다. 각 장르는 독특한 ‘수사적 기능(rhetorical function)’과 여러 ‘문학적 장치(literary devices)’로 구성되어 있다.<sup>43</sup> 예를 들어, 시의 수사적 기능은 함축 언어로 깊은 감정을 전하는 것이며, 시에 나타난 문학적 장치는 언어함축, 은유, 과장, 리듬, 반복, 평행법(parallelism) 및 교차대구법 등이다. 설교자는 본문에 내재된 문학적 장치들이 만들어 내는 효과(impact of a text)를 발견하고 그것을 설교에서 살려내면 된다.<sup>44</sup> 즉 본

<sup>42</sup> 이런 관점에서 Long은 내용과 형식이 분리될 수 없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내용의 형식(form of the content)’이라는 표현을 쓴다. Long, *Preaching and the Literary Forms*, 12-13.

<sup>43</sup> Long, *Preaching and the Literary Forms*, 24-29, 30-33.

<sup>44</sup> Arthurs, *Preaching with Variety*, 28.

문의 문학형식(literary form)이 만들어내는 본문의 다이내믹(textual dynamics)을 설교에 가지고 오는 것이다.<sup>45</sup>

잠시 살펴본 것처럼 현대 강해설교가 성경 장르를 설교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면 그러한 시도를 어떤 이름으로 불러야하는가. 아마도 아더스가 처음 사용한 ‘Genre Sensitive Preaching’이 좋은 선택 중 하나일 것이다.<sup>46</sup> 이 용어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장르에 민감한 설교’가 되는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본문의 문학적 장치를 통해 나타나는 다이내믹을 설교에서 살리기 위해 장르를 중요하게 고려하자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본문의 장르를 설교에 적용한다는 것 이 본문의 장르와 설교전달의 형식을 동일하게 만드는 ‘형식 근본주의자(form fundamentalist)’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sup>47</sup> 즉, 시편설교를 한다고 해서 설교자가 메시지를 한 편의 시로 전달해야 한다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 장르가 살아있는 설교에서 설교자의 역할은 텍스트를 ‘모사’(replicate)하는 아니라, 그 장르가 가지고 있는 주요 수사학적 효과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것’(regenerate)이다.<sup>48</sup> 시편설교라면 설교에서 히브리 시가 지닌 독특한 장르적 특징인 이미지, 감정, 시적구조 등을 살려주면 된다.

<sup>45</sup> Long, *Preaching and the Literary Forms*, 11. 스미스, 「본문이 이끄는 장르별 설교」, 52. 스미스에 따르면 성경 본문의 역동성은 성경 기자가 의도한 본문의 감정적 효과를 의미한다. 본문의 역동성은 많은 방법을 통해 전달된다. 그러나 가장 명확한 방법은 성경본문 장르에 사용한 문학적 장치를 통해서다.

<sup>46</sup> Arthurs, *Preaching with Variety*, 28.

<sup>47</sup> Arthurs, *Preaching with Variety*, 27; Long, *Preaching and the Literary Forms*, 33.

<sup>48</sup> Long, *Preaching and the Literary Forms*, 33.

### 1) 시편 본문, 머리에 그려지는 설교

위에서 제시된 방법을 통이 제시하는 실례로 살펴보자. 시편은 예배와 개인묵상의 시로써의 기능을 한다. 시편은 간결한 표현, 이미지, 상징, 상상력, 구조 등의 문학적 장치를 통해 시적효과를 만들어낸다.<sup>49</sup> 그렇다면 이런 문학적 장치들과 효과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교에서 살려낼 수 있을까. 롱은 시편1편을 통해 몇 가지 방법들을 제시한다.<sup>50</sup> 먼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본문이 강조한 이미지(의인은 나무며, 악인들은 겨다)를 설교에서 동일하게 강조함으로, 그 이미지가 청중들의 상상력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또한 본문의 구조에서 나타난 의인과 악인의 날카로운 대조를 통해 메시지를 강화해야 한다. 1절에서 의인은 어떤 구체적 행동에 관여되지 않은 사람으로 나타난다. 그는 걷지도 서지도 앉지도 않는다. 그와는 반대로 악인들은 무엇인가를 도모하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음이 암시된다. 2절에서 첫째 구는 동사 없이 의인을 소개한다. 두 번째 구는 동사가 나타나나 명상과 관계된 단어로 의인을 소개한다. 그는 오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3, 4절 또한 이미지의 대조가 분명히 나타나도록 설교한다. 의인은 한 장소에 고요하게 서 있는 나무와 같다. 그 와 대조적으로 악인들은 방향을 잊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겨와 같다. 결과도 대조적임을 설교자는 강조해야 한다. 악인은 무(nothingness)속으로 날려가고 결국 심판에 이른다. 그러나 의인은 협통과 인정의 길로 간다. 이렇게 본문에 나타난 이미지와 대조의 구조를 설교에 반영해 메시지가 시각적,

<sup>49</sup> Long, *Preaching and the Literary Forms*, 45, 47, 49,

<sup>50</sup> Long, *Preaching and the Literary Forms*, 45-51.

감정적 임팩트로 청중의 마음에 남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본문에 나타난 두 타입(의인과 악인, 혹은 나무와 겨)에 해당하는 현대의 행동과 삶의 결과를 예로써 제시함으로, 시편이 오늘의 청중에게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머리에 그려지도록 제시해야 한다.

롱은 시편 장르를 어떻게 설교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방법론을 제시했다. 그러나 다양한 시편을 설교에 적용해서 다양하고 풍성한 설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발전되고 세밀한 방법론이 필요하다. 최근에 제시된 한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sup>51</sup>

A. 주해단계(Exegetical Step) : 시편을 마음속에 그리고 느끼라

1. 선택한 본문이 어떤 종류의 시편인지 확인하라
2. 본문의 거시적, 미시적 구조를 파악하라
3. 본문의 감정을 파악하라
4. 본문의 이미지를 파악하라
5. 본문의 핵심 메시지(CMT:central message of the text)를 파악하라.

B. 설교준비단계(Homiletical Step) : 시편을 청중에 맞게 빚으며 설교하라

6. 시편의 구조와 감정선(emotional line)을 고려해 설교 전달 형태를 결정하라

---

<sup>51</sup> 필자가 본문이 이끄는 시편 설교가 되도록 롱, 아더스, 스미스의 방법론을 바탕으로 직접 만든 것이다.

7. 설교 주요대지에 사용될 이미지를 선택하고 강화하라
8. 여러 번역본을 활용하거나 자신이 원어를 참고해 자신이 직접 번역하라
9. 중심 대지를 요약하고 기억하게 할 영적 문장(spiritual sentence)을 적절하게 사용하라
10. 연관성(relevance)과 적용을 넣고 설교문을 작성하라.

## 2) 잠언, 그려주고 지혜를 주는 설교

본문의 장르를 설교에 적용하는 또 다른 예를 잠언으로 들어보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잠언은 주요 세 장르 중 하나인 시(Poem)의 하부 구조에 위치해 있다.<sup>52</sup> 그렇다면 주로 시편과의 장르적 공통점이 많을 것이고, 잠언만의 특징도 있을 것이다. 이 공통점과 독특성을 설교에 적용하면 된다.

아더스가 제시하는 실례를 살펴보자. 잠언은 삶의 일상에 뿌리내려진 속담, 격언 형태의 지혜들이다.<sup>53</sup> 잠언은 다음과 같은 형태적 특징(stylistic feature)을 보인다.<sup>54</sup> 잠언은 시처럼 간결하다. 짧으면서도 리듬과 운율 등의 청각적 장치가 있어, 기억하기 쉽다. 잠언은 일종의 시이기 때문에 수사학적 효과를 만들기 위해 은유, 아이러니, 알레고리, 과장, 비유적 언어를 사용하며, 동시에 교차대구법, 평행법과 같은 구조적 장치로도 메시지를 강화한다. 이런 문학적 장치를 통해 잠언은 말하는 자와 듣는

<sup>52</sup> 스미스, 「본문이 이끄는 장르별 설교」, 60.

<sup>53</sup> Arthurs, *Preaching with Variety*, 131, 135.

<sup>54</sup> Arthurs, *Preaching with Variety*, 132-40.

자가 함께 협력해(collaborate) 본문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잠언에는 유머가 많고, 여인의 역할(좋은 것으로든 나쁜 것으로든)을 부각시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그렇다면 이런 잠언의 장르적 특징을 어떻게 설교에 반영할 수 있을까. 먼저 잠언을 설교할 때 이미지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sup>55</sup> 잠언은 시처럼 강한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설교자가 이것을 설교에 동일하게 사용하되, 현재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잠언 26:18의 “횃불과 화살을 쏘아서 죽이는 사람”은 현대 사회에서 폭탄을 던지고 총을 쏘는 살인자의 이미지로 바꾸어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잠언은 일상의 관찰을 기반으로 교훈하기 때문에, 이것을 현대적 기법으로 옮기는 것도 효과적 방법이다.<sup>56</sup> 만약 잠언 27:3(“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을 설교한다면 어리석은 사람들의 분노를 관찰한 결과들, 즉 분노와 관련된 통계들, 사건들, 각종 이야기들을 사용해 메시지를 강조할 수 있다. 설교의 중심 아이디어를 잠언식의 짧고, 기억하기 쉬운 형태로 만드는 것도 잠언 설교법의 핵심 중 하나다. 이외에도 잠언의 구조를 통해 메시지를 강화하는 방법도 설교자가 잊지 말아야 할 방법이다. 또한 잠언이 유머를 선호하기 때문에, 설교자도 적절히 유머를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잠언의 특징을 살려서 설교하는 것에 대해 아더스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을 포함해 다음과 같은 13가지의 방법들을 제시했다.<sup>57</sup> 1) 약속이 아닌

<sup>55</sup> Arthurs, *Preaching with Variety*, 142-43.

<sup>56</sup> Arthurs, *Preaching with Variety*, 143.

<sup>57</sup> Arthurs, *Preaching with Variety*, 143.

관찰들을 설교하라. 2) 이기적인 행동, 인본주의, 물질주의를 설교하지 말라. 3) 사고 단위들(thought units)로 나누어 설교하라. 4) 상상력을 활용하라. 5) 말하는 것만큼 보여주라(통계, 실례 등). 6) 스포트라이트를 켜라(잠언의 특정한 상황을 조망). 7) 당신의 중심 아이디어를 ‘잠언식’으로 만들라. 8) 성경적인 잠언들과 현대적 잠언들을 비교하고 대조하라. 9) 잠언의 움직임을 빌려오라(잠언의 생각과 감정의 흐름을 재생). 10) 교사의 입장에서 적용하라. 11) 여성들의 역할을 드러내라. 12) 유머를 사용하라. 13) 소박한 언어를 사용하라.

#### IV.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현대 강해설교는 성경 장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그것을 어떻게 설교에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본문의 내용이 담긴 장르를 이해해야 본문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장르가 제시하는 방식으로 본문을 읽어야 본문의 역동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역동성을 느끼면 장르를 통해 다양한 설교의 형태를 만들어 낼 수 있다.

혹자는 물을 것이다. 본문의 의미만 충실하게 전달하면 되지 장르까지 신경을 써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이다. 그에 대한 필자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성경의 내용을 진리로 받는다. 동시에 그 진리를 담아 전해주신 틀, 장르 또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임을 깨닫는다. 같은 생각을 가진 설교학자들이 국내외에서 점점 많아

지니 기쁘다. 최근 스미스의 확신에 찬 결론이 성경 장르를 통해 설교의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현대 강해설교의 중요한 한 흐름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밋밋한 교훈서 같은 것이 아니다. 그보다 훨씬 더 풍성하다. 성경은 풍부한 뉘앙스가 담긴 책으로, 그 안의 다양한 장르는 본문이 생명력 있게 전달되도록 돋는다. 이런 성경을 밋밋한 일차원적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은 잘못 재현하는 것이다.... 설교의 형태는 본문의 형태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sup>58</sup>

혹자는 스미스의 주장대로, 장르를 통해 본문의 의미를 역동적으로 파악하고, 다양한 장르를 설교의 여러 가지 형태로 전달해내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 현대 강해설교는 성경의 다양한 장르를 설교형태에 녹여내는 길을 점점 찾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자신의 진리를 담아 주신 장르를 잡고 씨름하고 있다. 그 결과는 메시지의 명료함과 풍요함이다. 진리가 여러가지 다양한 형태로 명료하면서도 풍요롭게 전달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씨름이 아닌가?

---

<sup>58</sup> 스미스, 「본문이 이끄는 장르별 설교」, 52.